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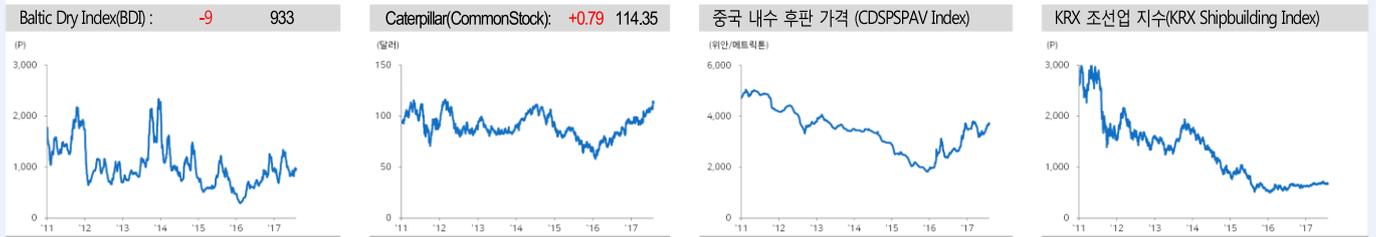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9,973.1	17.7	176,000	-1.1	1.1	NA	27.1	63.4	143.2	0.9	0.9	1.3	0.6
현대로보틱스	5,851.6	16.6	486,000	2.5	17.4	NA	NA	5.3	6.0	1.0	0.9	19.4	15.8
현대일렉트릭	1,302.2	7.4	351,000	0.7	11.8	NA	NA	17.2	11.6	1.6	1.4	9.5	13.1
현대건설기계	1,541.1	10.0	430,000	1.1	13.2	NA	NA	13.4	10.3	1.8	1.5	13.1	15.8
삼성중공업	4,485.0	19.6	11,500	0.4	-6.9	5.0	24.3	58.3	124.4	0.7	0.7	1.2	0.6
대우조선해양	NA	2.9	NA	NA	NA	NA	NA	NA	NA	NA	NA	17.6	9.1
현대미포조선	2,230.0	13.1	111,500	0.9	7.2	20.9	65.9	11.0	37.8	0.9	0.9	8.9	2.4
한진중공업	469.8	4.3	4,430	0.1	-0.6	26.4	31.6	-13.8	10.0	0.5	0.5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268.6	28.8	51,500	1.6	-15.4	-20.8	-10.3	7.8	6.9	1.3	1.1	18.7	17.5
두산발켓	3,684.2	24.3	36,750	1.0	5.8	-4.0	2.5	16.1	14.8	1.0	1.0	6.6	6.7
현대로템	1,564.0	29.0	18,400	1.4	-9.6	-14.8	1.4	34.9	23.6	1.1	1.1	3.2	4.6
하이록코리아	317.9	46.2	23,350	0.9	-7.3	2.4	10.7	12.2	10.8	1.0	0.9	8.5	9.0
성광벤드	280.0	13.5	9,790	-0.3	-8.5	-10.6	10.5	31.6	18.2	0.6	0.6	1.9	3.2
태광	258.9	17.1	9,770	0.2	-6.1	7.2	17.9	36.5	20.2	0.6	0.6	1.6	2.9
두산중공업	1,980.2	11.5	18,600	-0.8	-12.5	-20.7	-31.6	16.7	9.4	0.7	0.6	4.1	6.4
두산인프라코어	1,782.0	13.6	8,590	4.5	2.8	-10.1	-2.6	10.4	8.5	0.8	0.8	8.3	9.6
두산엔진	293.6	5.6	4,225	2.5	-3.1	3.6	28.6	21.5	25.5	0.5	0.5	2.5	2.0
한국항공우주산업	3,801.5	19.4	39,000	1.3	-34.7	-38.1	-41.8	16.2	13.5	2.4	2.1	15.6	16.8
한화테크윈	1,980.4	22.3	37,650	4.9	-14.4	-26.0	-13.3	18.1	13.8	0.8	0.8	4.6	5.8
LG에너지솔루션	1,755.6	21.1	79,800	-0.6	9.6	0.4	-0.9	17.9	17.3	2.4	2.2	15.2	13.6
태웅	439.2	4.1	21,950	-1.1	-11.0	-18.9	-2.2	NA	NA	NA	NA	NA	NA
동성하이텍	164.6	3.0	6,100	0.0	-4.8	-14.7	6.1	-28.4	12.1	1.5	1.4	-5.1	12.0
한국가분	269.9	16.7	6,140	0.7	-5.4	-8.9	1.5	24.1	22.8	0.8	0.8	3.5	3.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치수 123p, 중고조선가치수 87p 유지

Clarksons 신조선가치수는 123p, 중고조선가치수는 87p를 유지함. 현대중공업이 Vitol로부터 8.4만CBM VLGC 2+6척을 수주함. 확정분 2척의 경우 2019년 상반기 인도 예정임. 중국의 Jiangsu New Yangzijiang은 Evalend Shipping으로부터 8.2만DWT급 벌크선 2척을 수주함. (Clarksons)

한국형 해운동맹 '한국해운연합', 내년 1월 출범

한국형 해운동맹인 '한국해운연합(KSP)'가 내년 1월 출범이 예정됨.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총 14곳의 해운사가 KSP 결성을 위한 MOU 체결을 오는 8월에 계획함. 국내 선사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정리될 것으로 알려짐. (조선비즈)

Losses lessen for Precious

태국 Dry-bulk 업체인 Precious Shipping은 2분기 15만달러 손실을 기록했지만, 각 선박의 Daily 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함. Dry-bulk 업황이 개선되면서 오래된 선박의 페션이 줄어들고 있고, 향후 신조 발주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공급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함. 따라서 향후 BDI는 공급보다는 수요의 증감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Oil majors' results offer cheer to shipowners

메이저 오일업체 BP, ExxonMobil, Shell, Chevron, ConocoPhillips가 2분기 실적 발표함. 다섯 업체 모두 전년동기 대비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통한 이익 증가를 기록함. 신규 프로젝트는 BEP 30~40달러에서만 승인 중. 원유의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를 수급의 변곡점으로 예상함. (TradeWinds)

Cosco Singapore reduces red ink

싱가폴 Cosco Shipping International은 순손실 1,53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손실규모가 1,180만달러 축소됨. 그러나 저유가에서 offshore의 업황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언급함. (TradeWinds)

Noble falls to loss as revenue sinks

시추설비 운영업체인 Noble Corporation은 2분기 9,3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함. 적자 전환은 Drillship의 매출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 매출감소는 운영일수 감소와 용선료의 인하로 발생했고, Drillship의 가동률은 전년 동기 85%에서 52%로 급락함. 덧붙여, 업황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함. (Upstream)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8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8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정보분석 담당자는 2017년 8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